

사회단체 탐방 \_ 16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포천시지회

친목도모 · 기술력 향상 위한 敎育과 技術교류

기술력으로 봉사 · 자금지원 뜻 있는 단체와 協力 필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포천시지회(회장 한성희)는 시공업자의 품위 유지, 기술의 향상, 열설비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및 건설산업진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천시지회는 회원의 품위향상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시공업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 연구 및 건의, 시공업 기술요원 및 건설기술자교육, 시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훈련, 시공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의 발행, 특정열사용기자재 유통관리 및 물가조사, 시공업의 진흥과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예법 제55조에 의한 불량기자재 유통 방지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보일러설치·시공확인사업, 예법 제92조 및 건설법 제91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시공기술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가스관련법에 의한 시공자·시공관리자의 관리와 교육 및 관련사업, 보일러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진단사업, 고용보험 사무대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천시지회는 현재 30여명의 회원과 5명의 특별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기술교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물론 전국적으로 수해와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장비와 기술로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창 수해지역을 방문해 3박4일동안 침수보일러 150여대를 수리해 주기도 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전라북도지역에 내린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에 나선결과 협회가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관내에 있는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장비를 동원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포천시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독거노인 들은 혼자 사시기 때문에 집안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일러도 오래되고 교체가 필요하지만 협회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뜻 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금만 확보가 된다면 포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독거노인들이 올 겨울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일러 일제점검에 나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가 주춤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주나 일반주택, 상가 등에서 설비업무를 발주 할 때는 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하여 공사를 발주하기를 회원들은 바라고 있다.

공사금액 또한 현실적이지 못해 부실시공 등이 예상되며 실제로 피해를 입은 후에는 더욱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과거에는 협회에서 시공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업무간소화 등의 이유로 이 제도마저 없어져 허가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건물 준공서류에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폐지됐다.

소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허가 업체 관리도 안되고 있



한성희 지회장이 한국열관리협회 신현석 회장으로부터 산업자문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다. 8~9년전에 사망한 사람도 허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허가업체 보호책을 조제로 정해 추진했으나 행정소송에서 상위법이 없는 조항이라며 패소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허가 시공은 이윤에 집착하고 자부심이 없으며 부실시공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인 포천시의 경우, 심야전기보일러가 농가에 많이 시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보일러 제조회사중 50%가 문을 닫았거나 폐업한 회사를 제품이라는 점에 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지회는 추석전까지 관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보유한 기술력으로 겨울을 편안하게 지내 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취지에서다. 봉사대상이 선정되면 바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병열(군내종합설비) ▶김중성(경동설비) ▶최희호(그린설비) ▶안동용(군내설비) ▶박용기(꼭지설비) ▶이용기(내촌 용설비) ▶조운목(대원종합설비) ▶이학계(대진설비) ▶김만호(만호보일러) ▶송근수(미래설비) ▶구준서(밀알설비) ▶이재현(삼천리설비) ▶정찬식(선단설비) ▶이상휘(성학설비) ▶이상석(신용설비) ▶김진규(영남설비) ▶최남부(영남설비) ▶김영남(영동설비) ▶이성진(예성설비)

▶조성환(우리설비) ▶박광필(유진설비) ▶남문현(이동설비) ▶함순균(이레기계설비) ▶이병범(준기건설) ▶김중창(청록설비) ▶한성희(태성설비) ▶김기태(한양건축) ▶유기섭(한일설비) ▶이인철(행운설비) ▶고영부(현준설비) ▶안상훈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연 역**
- 1979.9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창립
  - 1983.5 (사)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설립
  - 1985.4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기술요원 교육기관 승인(동력자원부)
  - 1990.2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 시공 확인기관 지정(동력자원부)
  - 1992.8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설립승인(법정단체)
  - 1993.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 교육기관 지정(노동부)
  - 1997.12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건설교통부)
  - 1999.7 한국난방시공협회로 명칭변경
  - 1999.8 건설사업정보의 종합관리 기관지정(건설교통부)
  - 1999.12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지정(노동부)
  - 2000.10 가스안전 촉진대회 국무총리 단체표창
  - 2002.11 국가재난관리 자원봉사대 발족
  - 2004.7.9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산업자원부)
  - 2004.9.1 한국열관리시공협회로 명칭 변경
  - 2006.4.13 대통령 단체 표창

인터뷰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포천시지회장 한 성 희

허가업체 시공으로 부실시공 방지해야

소외된 이웃 돕기 정기적으로 추진 계획

“허가업체인 저회 회원사와 시설 상담으로 많은 부실시공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포천시지회 한성희(49·사진)지회장은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출신으로 의북초등학교와 포천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일러·배관 등 난방시공 전문건설업 대표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반주택건물의 50%이상 열설비분야라고 밝히는 한 지회장은 정격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허가업체에서의 원칙을 무시한 시공 때문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 국가적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이들 무허가 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고 허가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허가 시공업체들은 이윤에 집착하고 자부심이 없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사업자도 설비 시공을 할 때는 협회에 문의하여 허가업체가 시공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지회장은 협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포천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점검해 주기도 했다.

기술력은 무한정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 교체해주시는 어렵지만 현재 보일러 시설을 보수하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 지회장은 포천시 당국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저희 시설 공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준공시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저희 단체와 시설 상담을 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며 “회원사에게 시공을 맡기면 정격시공은 물론 시설물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이번 기회에 포천시민들에게 크게 홍보가 되어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공사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할 때마다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협회 운영에 대해 한 지회장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봉사 단체간의 협력과 교류는 물론 낙후된 보일러 수리 및 안전점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재난 등의 사고에 대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성희 지회장, 이상휘 부지회장, 조운목 총무, 남문현 감사 등이 임원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회장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록접수 권한 등의 위탁,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시책,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등의 법이 시행되면 회원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 지회장은 전국 3만5천여명의 난방시공 전문건설업 대표자가 모인 산업자원부 산하 단체로서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소비자 보호 및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전문기술과 보유한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 및 저소득 소외 계층이나 불우이웃의 난방시설 점검 및 보수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7 가스안전사고 및 에너지절약 실천 결의대회에 참가한 포천시 지회 회원들이 전주시 덕진공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07.9.6일/20일)



포천시지회 회원들이 1998년 내촌면 지역 수해복구사업 내촌면사무소에서 침수된 보일러를 수리하고 있다.

## 중 국

# 中國 丹東市 제1회 韓國주간기념 ‘傳統춤의 饗宴’

**일시 및 장소**

2007년9월20일 오후 7시30분(중국 단둥시 인민문화궁)  
2007년9월22일 오전10시30분(중국 단둥시 금강산공원)

**주관**

의정부시 이미숙무용단, 중국 단둥시

**후원**

문화관광부, 의정부시, 중국 단둥시

**공연내용**

- 1) 화평지구: 대한민국 문화재춤으로 지정된 태평무와 전통춤 화관무를 합성하여 만든 춤으로 국가의 태평성대와 화합의 잔치를 축하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춤으로 개막식 등에 축하무로 공연되고 있는 춤이다.
- 2) 한량무: 대한민국 가문극 중 가문계에서 연희되던 최초의 극형식의 춤으로 역동성, 남성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남성무의 대명사라 불리고 있으며 공중계의 춤도 아니고 순수한 민속춤도 아닌 교방계류의 무용극이라는 의미가 있는 춤이다.
- 3) 태평산조: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으로 단아한 맛과 흥겨움이 담겨있는 춤이다.
- 4) 무고와 아박: 무고를 중심으로 한삼과 화려한 꽃을 들고 무고를 치고 도는 동작을 통해 화려하고 우아함을 표현한 후 빠른 장단에 맞추어 아박을 이용해 뛰고 도는 방식으로 구성한 춤이다. 우리춤의 특징인 잦은 걸음으로 현란한 몸동작과 다양한 대형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 5) 경고와 검무: 작은 장고처럼 보이는 경고와 검의 조화를 통해 신명나고 화려함을 표현한 춤이다.
- 6) 애가: 한국 전통적인 음악과 판소리 춘향가중에서 그 주인공인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을 그린 대목을 춤으로 보여주는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한 춤이다.
- 7) 청청수월래: 손뼉을 들고 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며 춤을 추다가 다시 맨손으로 나와 신명나는 사물장단에 맞추어 모두가 하나됨을 표현한 춤이다.
- 8) 훈령무:남자의 박력과 기상을 보여주는 춤으로 매우 힘있고 절도있는 동작을 표현하는 춤이다.
- 9) 동방의 색, 한국의 음: 자연의 소리, 바람, 구름,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 땅과 혼과 기를 부르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하늘과 땅과 사람의 어울림의 조화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소리의 화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미숙무용단은 1992년 의정부시에 사무실을 두고 창단한 무용단으로 전통무용 공연활동을 통해 조상의 일을 계승하고 전통무용 기본 춤사위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창작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힘찬 위상을 무용이라는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무용단이다.

■ 안무 - 이미숙  
■ 출연 - 박문용 이소희 이순주 안민형 홍선아 김선혜 최소연 정문주 김지은 조유진 이재성 심빛나 신나래 김지현 우수정 이정철 김성준 신경철  
■ 기획 - 김영복